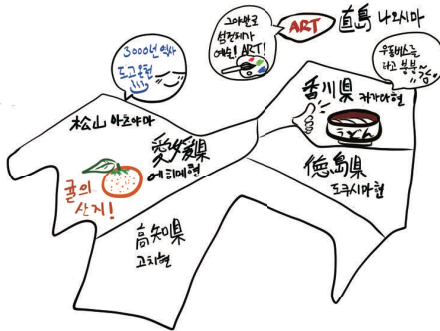


어쩌다 시코쿠!

- 일본 시코쿠에서 먹고, 즐기고, 온전한 이야기



두 명이 시코쿠를 여행하며 느낀 바를 자유롭게 적은 글입니다. 글에서 이중 인격이 느껴진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 글쓴이를 별도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읽으실 때 참고주세요. (꾸벅)

01. 그런데... 왜 시코쿠?

*Jinny*_나름 일본에 살면서 일본 여행을 자주, 많이 했다고 자부했는데 시코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섬이라서. 거긴 우동도 맛 있고, 최고로 오래된 온천도 있고, 붓짱(일본소설 『도련님』)의 무대라면서? (당시 도쿄에 살고 있던 난 시코쿠에 혼자 가기 뻔 쫓해 한국에 있는 *Truly*에게 농담삼아 같이 가자고 말했다. 근데... 진짜 왔다.)

*Truly*_난 야근이 지겨워서...가 아니고, 하루키 수필집 중 우동 투어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배경이 된 시코쿠에서 우동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Jinny*_폼...F4 기준표도 아니고, 우동 먹으러 일본을 오다니..훗

*Truly*_흠. 닥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글쓴이



Jinny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길치, 방향치지만
다른 나라를 향한 호기심이
멈추지 않는 꿈꾸는 30대



Truly

금요일을 좋아하고,
회사를 싫어하는,
IT와 애증 관계인,
30대 여자 사람



02. 사누키 우동의 첫인상

Jinny_기독교 종교음악 중의 하나인 CCM 노래 가사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다. 내가 카가와 현에서 만난 사누키 우동에 대한 첫 인상이 바로 딱 그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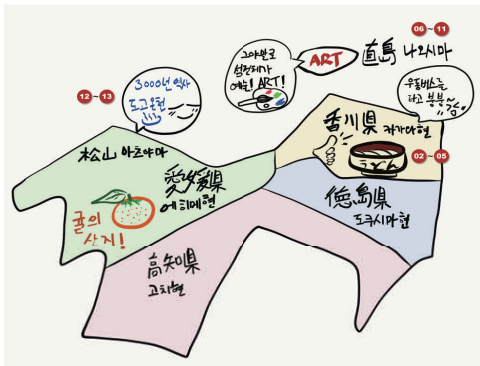
사누키 우동을 먹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만족했다고. 밀가루만 먹었다 하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내가 이 여행 기간에 그 많은 우동을 먹고도 탈이 나지 않았음에 대한 감사함도 포함해서 말이다.

지금도 이 여행을 생각하면 그때 먹었던 우동의 맛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나... 또 먹으러 갈 수 있겠지?

Truly_우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국물은 짜고 면은 라면보다 못하다. 맛 좀 있는 우동을 먹으려면 전문 일식집 정도는 가야 하는데 비싸고 가격 대비 맛도 별로다.

그런데.. 시코쿠에서 온갖 종류의 우동을, 그것도 싼 가격으로 접하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먹은 건 대체 뭐였... 사누키 우동은 종류별로 꼭 먹을 것을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 중 반이 다 우동.(쿨럭) 참고로 사누키는 시코쿠 카가와 현의 옛 지명이라고 하네요.

- Jinny와 Truly의 시코쿠 여행 루트 -
2014년 12월12일-14일(2박3일)



03. 우동 투어는 우동 버스로!

Jinny_우동버스를 타면 목에 걸 수 있는 패스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가게들의 정보가 담긴 쪽지와 설문지를 나눠준다. 가이드 동승에 명소인 리츠린 공원을 돌아보는 코스도 함께여서 그런지 우동버스 가격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우동집이 아닌, 유명하면서도 멀리 있는 우동집을 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 대신 우동 가격과 공원 입장료는 별도 지불이다. 하지만, 전혀 비싸지 않으니 안심하시라!!!

여기는 바로 '우동현'이 아니던가!

☞ 우동버스 투어 정보: www.kotosan.co.jp/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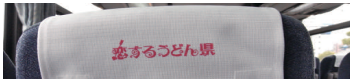


우동버스는 이렇게 생겼다.



버스 타면 주는 목걸이 패스와 방문할 우동집과 우동 메뉴 설명서. 우리는 반나절 코스라 우동집 2곳을 방문했지만, 종일 코스를 선택하면 3곳까지 가볼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 메뉴도 있으니 일본어를 모른다고 당황하지 말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누키 우동' 그 사누키 우동의 발상지인 카가와 현의 캐치프레이즈는 무려 「코이스루우동켄(恋するうどん県)」 즉, 사랑하는 우동현이다. 카가와와 옛 지명인 '사누키'에서 이름을 따 만큼 브랜드화 되어있는 우동이다 보니 아예 현 이름을 '우동현'이라고까지. 그만큼 사누키 우동은 카가와 현의 대표 음식이며 브랜드고, 그 자랑하는 분량만큼 맛있고 특색 있다.



우동버스 좌석에 붙여져 있던 카가와 현의 캐치프레이즈. 글씨도 사랑스럽고, 의미도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납득했다. 버스 안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홍보용 동영상은 빼고 말이다.

여행자들은 우동버스, 우동택시 등을 이용하여 온종일 혹은 반나절 우동 먹는 투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나눠주는 '우동지도'를 들고 입맛과 취향에 따라 직접 우동집을 방문할 수도 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입성한 카가와 현에서 나와 동행은 우동버스 반나절 코스를 선택하여 그들이 자랑하는 우동을 즐겨보기로 했다.

[부록] 알고 먹자! 우동의 종류



가마아게우동 (釜あげうどん)

가마에서 삶아낸 물과 면을 함께 담아내고, 쫄유에 적셔 먹는 우동



자루우동 (ざるうどん)

우동면을 삶은 뒤 차게 씻어내고, 체에 담아 내는 우동. 차가운 채로 쫄유에 적셔 먹는다.



붓가케우동 (ぶっかけうどん)

삶은 우동에 다양한 고명을 얹고 쫄유를 부어서 먹는 우동. 가케우동보다 쫄유의 양이 적다.



가케우동 (かけうどん)

뜨거운 쫄유와 함께 담겨져 나오는 우동. 보통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우동'의 형태에 가깝다.



쯔케지루우동 (つけ汁うどん)

삶아진 우동면발을 돼지고기나 버섯 등을 넣고 끓여낸 진한 쫄유에 적셔 먹는 우동. 쫄케우동이라고도 말한다.



니코미우동 (煮込みうどん)

쫄유에 면발을 넣고 끓여내오는 우동



야키우동 (焼うどん)

우동면을 여러 재료와 함께 볶아서 먹는 우동

[부록] 더 깊이 알고 먹자! 우동 사전

*쯔유 (つゆ)

우동면을 담가먹거나 위에 뿌려먹는 용도의 다시 국물. 우동 종류에 따라 진하기가 다르며, 오래된 우동집들은 고유의 쯔유 만드는 비법을 갖고 있다.

*야쿠미 (薬味)

우동에 얹거나 넣어먹는 고명을 말한다.

*키미 (黄身)

계란 노른자. 잘 풀어서 쯔유 대신 면발에 적셔먹어도 일품이다.

*온센타마고 (温泉たまご)

온천물로 삶아낸 흰자만 살짝 익히거나 반숙이 되어있는 상태의 계란. 터트려서 면발과 섞어 먹는다.

*다이콘오로시 (大根おろし)

무를 간 것. 면발 위에 올리고 간장이나 쯔유를 살짝 부어 먹는다. 혹은 쯔유에 넣어 먹기도 한다.

*덴카스 (天かす)

튀김 부스러기. 맑은 국물의 우동도 좋지만, 덴카스를 넣으면 맛이 좀 더 깊고 진해진다.

*아사츠키/아오네기 (あさつき・青ネギ)

실파, 잔파, 쪽파, 기본적으로 우동과 잘 어울리는 고명 중 하나.

*쇼가 (しょうが)

생강 간 것. 메밀국수에는 김이 고명으로 잘 어울리는 것처럼, 우동과 잘 어울리는 고명은 생강이다.

*이치미/시치미토-가라시 (一味・七味唐辛子)

임미/칠미 고추가루. 한 가지 맛, 일곱 가지 맛이 나는 고추가루 향신료다. 매운 걸 좋아한다면 곁들여 먹어도 좋다.

*니쿠 (肉)

고기. 살짝 간이 된 고기를 우동에 함께 얹어 먹어도 맛있다.

*고마 (ゴマ)

깨. 깨도 우동의 고명으로 잘 어울린다.

*자루 (ざる)

체, 소쿠리 라는 뜻. 보통은 냉으로 먹는 우동면발이나 메밀국수를 담아내는 그릇의 이름으로 많이 쓰인다.

*덴푸라 (天ぷら)

튀김(오뎅이 아니다). 오징어나 야채 튀김 등 다양한 재료의 튀김을 얹어서 따뜻한 우동국물과 함께 먹는 것도 좋다.

*오니기리 (おにぎり)

주먹밥. 가게에 따라 명란, 매실 장아찌 등 재료는 다르며 우동만으론 부족할 때 함께 시켜 먹는다.

*고로케 (コロッケ)

감자나 소고기 간 것을 튀겨낸 튀김. 우동만으로는 허전할 때 함께 먹는다.

*치카라 (力)

한자로는 힘이라는 뜻이지만 우동에 얹어내는 고명에서는 떡을 의미한다. 일본의 떡은 우리나라와 달리 쪽쪽 늘어나기 때문에 먹을 때 주의.

04. 초가 우동집 '와라야'

Jinny_ 처음으로 방문한 우동집 '와라야' 이름 그대로 초가지붕이 매력적인 식당이었다. 인기메뉴 1, 2위를 시키고 기다렸다. 각 우동집 마다 내세우는 대표 메뉴는 조금씩 다르다.

와라야가 내세우는 가마아게 우동은 말 그대로 우동을 삶아낸 가마솥에서 면을 면수와 함께 건져내고 그 가게의 비법(?)이 담긴 쫄쫄(면을 적셔먹는 국물)에 다진 파 등의 토핑을 넣은 것을 말한다.



와라야 본점 전경.
내부는 굉장히 넓은
식당이다.



내부에서는 기념품을
팔고 있다. 면발과
쫄쫄이 맛있었다면,
직접 사가서 조리해
먹을 수도 있다.

사이즈가 '소'자라 안심했는데, 꽤 많은 양이 나와 당황했다. 두 메뉴 모두 맛있었으나 좀 더 면발의 쫄깃함을 원한다면 뜨거운 것 보다는 차게 먹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정말 맛있었던 면발. 그 쫄깃함과 밀의 향긋함이 아직도 입에 남아있는 것 같다.



홈페이지 www.wara-ya.co.jp
주소 香川県高松市屋島中町91番
전화 (81)087-843-3115
영업시간 10시~19시(3~11월)
10시~18시30분(12~2월)

[자루우동이란?]
자루소바와 같이 건져낸 우동을 찬물
에 식혀서 자루, 즉 체에 담아 나오는
우동으로 차게 먹는 우동을 말한다.

05. 정원이 아름다운 우동집 '야마다야'

Jinny_ 두 번째로 방문한 '야마다야'에서는 앞서 방문한 곳에서 먹지 못했지만 두 집 모두 인기 메뉴 3위를 달렸던 '봇가케 우동'을 주문하였다.

봇가케란 삶아진 우동면 위에 좋아하는 고명들을 올리고 쓰유를 위에서 부어 먹는 우동을 말한다. 각 고명은 원하는 기호대로 먹어도 되고, 한꺼번에 다 올리고 먹어도 된다. 먹는 사람 마음대로.



야마다야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도 고즈넉하고 예쁘고 깨끗했다.



안쪽 정원이 정말 예뻐던 야마다야. 자리 잡을 때 꼭 정원 쪽 자리를 사수하자.



야마다야의 봇가케 우동

홈페이지 www.yamada-ya.com/honten.html

주소 香川県高松市牟礼町牟礼3186

전화 (81)087-845-6522

영업시간 10시~20시

06. 노인이 행복한 섬, 나오시마의 비밀



Truly_나오시마는 사실 버려진 섬이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섬, 섬을 나간 젊은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섬, 일본 시코쿠 카가와 현 세토 내해에 위치한 작은 섬이었다. 섬 둘레는 16km로(자동차로 20분, 자전거로 한 시간), 한때 미쓰비시 제련소가 있었으나 구리 산업이 쇠퇴하며 사라지고, 섬 경제도 안 좋아졌다. 젊은이들은 도심으로 빠져 나갔고, 산업 폐기물은 섬 여기저기 무단으로 버려졌다. 섬은 환경적, 문화적, 생활 터전이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 갔다. 급기야 나오시마는 암울하고 불운한 희망 없는 섬 분위기에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나오시마는 문화의 섬, 예술의 섬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랑받는 섬이 되었다. 이 섬에 대체 무슨 일이...???

나오시마는 베네세 그룹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 1947년 설립된 베네세는 통신 교육, 출판업을 하는 회사로(혹시 빨간펜을 알고 있는가? 바로 그 회사) 교원, 대교와 유사하다. 1991년 사명을 후쿠다케에서 베네세로 변경했는데, 뜻은 라틴어의 bene(잘, 정직하게)와 esse(살기)의 조합어.

베네세와 나오시마의 인연은 창업자 후쿠다케 테츠히코 회장과 촌장 미야케 치카시의 공통된 신념에서 이루어 졌는데, 후쿠다케 회장은 전 세계 어린이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캠프장을 만들고 싶어했고, 미야케 촌장은 섬에 교육 공간을 만들고 싶어했다. 이 둘이 의기투합한 결과가 바로 나오시마 예술 프로젝트!

1986년 후쿠다케 회장의 돌연 사망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소이치로는 선친의 유지를 이어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함께 섬에 다채로운 건축물과 예술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중 미술관, 이우환 미술관, 베네세 하우스, 국제 캠프장, 공공 목욕탕 등이 베네세 그룹이 기획한 프로젝트. 안도 다다오 뿐만 아니라 한국 예술가 이우환, 미야지마 다쓰오, 스키모토 히로시 등 많은 예술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참여한 예술가들은 한결같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프로젝트였다고 말한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섬 여행자에게 예술과 힐링을 주는 건 아닐까?

"노인이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 창업자 후쿠다케 회장의 목적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 말이 그대로 섬에 이루어졌는지 나오시마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자.

07. 호박이 예술이 된 사연

Truly_ 미야노우라 항, 페리 선착장에 내리면 바로 옆에 빨간 호박이 보인다. 강렬한 원색에, 검은 점 무늬가 한눈에, 그리고 마음 속엔... '앵? 저게 뭐야.. 어째서 저런 장소에 호박이 있는거지?' 의아함도 잠시, 보면 볼수록 저 호박에서 시선을 땔 수 없다.

요상한 호박의 매력! 햇빛이 내리쬐는 날에도 비가 오는 흐릿한 날에도, 선명한 색채와 압도적인 큰 무늬, 균일한 점의 분포를 자랑하는데 ...

요 호박의 정체는 바로 일본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으로, (믿기지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치 예술 작품 중 하나다. (무려 제주도 본태 박물관에도 이 호박이 있다.)

사실 쿠사마 야요이는 열 살 무렵부터 환각과 정신 이상으로 평생을 시달렸다. 불행히도, 이 증세를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체벌을 가했고(물론 딸을 치유하려는 마음이었겠지만), 어린 쿠사마 야요이는 이해 받지 못한 외로움과 육체적 괴로움 속에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집안 빨간 식탁보 물방울 무늬를 보며 만들었다는 이제는 할머니가 된 야요이상의 이 호박 조형물은 나오시마 섬을 대표하는 예술작품 중 하나니 감상은 필수!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빨간 호박(위), 노란 호박(아래)

08. 인생 미술관: 지중미술관과 베네세 뮤지엄



TrulyJ_ 티켓을 사고 정원을 지나 조금만 내려가면 지중미술관 입구다. 이 미술관의 특징은 지상이 아닌 땅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작품을 위해 설계된 건축물이란 점이다. 땅 속에 미술관을 만든 이유는 세트 내해의 자연 경관을 지상 건축물로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니 건축자의 자연 친화적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지중 미술관은 온전히 한 예술가의 작품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설계된 완벽한 공간이다. 예술 작품과 소통한다는 것이 무언인지 시각을 넘어 청각, 촉각, 공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천재의 영감과 노력이 가득한 안도 다다오가 건축을 담당했고 예술가 3인(클로드 모네, 윌터 드 마리아,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모던한 콘크리트와 시원 시원한 공간, 드높은 천장이 매력적인 공간 그리고 그 중심부에 전시된 예술 작품들. 백문이 불여일견. 반드시 인생 미술관이 될테니 꼭 가보길...

20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 역시 안도 다다오의 건축이다. 입장료는 약 만원, 앤디 워홀 등 다양한 현대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안도 다다오만의 넓은 공간, 빛의 매력을 뮤지엄 이곳저곳을 자유 분방하게 돌아다니며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뮤지엄을 다 돌고 뮤지엄 카페에 잠깐 쉬노라면, '내가 정말 휴식하고 있구나'가 새삼 실감난다. 의자에 앉으면 세트 내해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보인다. (느껴보자, 탁 트인 바다 전경!)



나오시마에서는 예술을 넉넉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음미해보면 좋다. 하나를 보고, 본 것 하나를 정리하는 여유를 자신에게 선물해 보자. 시간에 쫓겨 다음 장소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게 아닌, 한 공간을 보고 한 타임 쉬어가는 일.

베네세 하우스에는 호텔도 있다. 호텔과 뮤지엄, 카페는 연결되어 있어 간혹 호텔 숙박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스르륵 나오니 놀라지 말자. (숙박객은 뮤지엄 관람 무료)

21

09. 꼬끼리가 있는 야한 공중목욕탕(I♡湯)

Jinny_나오시마 섬 안에 있는 공중목욕탕. 예술 섬이라는 명성에 맞게 공중목욕탕의 외관도 화려하다. 이 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 추웠고 동행과 나는 이곳이 온천이길 바랐으나 아쉽게도 수도물. 하지만 뜨끈한 물과 샤워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했으니 대만족이다. 탕의 모습도 겉모습처럼 재미있다. 특히 탕 바닥에 야릇한 춘화가 타일 조각으로 되어 있어, 목욕도 하고 예술 작품도 감상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술가 오타케 신로가 기획·설계한 공중 목욕탕으로 나오시마 페리 선착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오가며 금방 찾을 수 있다. 목욕탕 안에는 꼬끼리 동상과(정말 크다) 여기저기 예술 그림과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다. 목욕탕 이름이 "I♡湯"인 것은 湯(탕)의 일본어 발음이 "류"인 것을 연상하여 '아이러브류'로 지었다고 한다. 탕 바닥을 보고 놀라지 마시라! 부끄러워 하지 마시라! 에도시대 춘화 콜라주일 뿐이다. 이렇게 야한 목욕탕이 있대니!!! 뭐야 대체 이 목욕탕!!!

(조사한 바에 따르면 후쿠타케 회장이 나오시마 예술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불끈불끈, 섬의 노인들이 건강해지는 것, 그게 최고죠"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는...)

10. 소금 사이다와 올리브 콜라

너는 대체 무슨 맛이니?
나오시마 예술 섬에 갔을 때 만난 두 아이.
소금 사이다와 올리브 콜라;;



Jinny_과연 맛이 있을까? 소금에 탄산수를 탄 맛이거나 기름이 등등 뜨는 괴랄한 맛의 콜라는 아닐까? 라는 엉뚱한 걱정을 안고 먹어보았는데 뜻밖에 맛은 평범했다. 내 기준에서 '정말 맛있다'라는 평은 할 수 없지만, 혀 끝에 잔잔히 남는 소금 맛이 섬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어 좋았고, 너무 달지 않았던 콜라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올리브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므로 그냥 무작정 용인해 주기로 했다. 맛은... 소금 사이다가 그나마 좀 낫다.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Truly_이후, 소금 사이다와 올리브 콜라를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찾기 힘든 맛...

11. 컨테이너형 게스트 하우스: 리틀 플럼



Jinny_ 생각보다 둘러볼 곳이 많았던 나오시마 섬은 당일치기로 힘들 것 같아 현지 게스트 하우스에서 1박을 하기로 했다.

다행히 게스트 하우스가 많아 노숙은 면할 수 있었다. 페리 출발 전 근처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 직원 도움으로 예약을 미리 할 수 있었고 동행과 나는 잠자리에 크게 연연해 하는 성격이 아닌 지라 비교적 시내 저렴한 곳으로 예약했다.

자전거도 대여해 주고, 식당도 겸하고 있는 종합 게스트 하우스 리틀 플럼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것 같았는데, 밤에는 조금 추웠지만 그것만 빼고는 주택가 한가운데라는 접근성도 마음에 들었고 귀여운 외관의 공중목욕탕(아이러브유)가 뒤편에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목욕 후에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무엇보다 이럴수가... 음식이 맛있었다.



카레를 별로 안 좋아하는 데 싹싹 긁어먹은 드라이 카레. 게스트 하우스와 식당을 겸하는 주인장의 솜씨인데 정말 맛있었다.



여행지를 가면 항상 그 지방에서만 파는 토산품이나 술을 마셔본다. 그 지방 외에는 먹을 수가 없고,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서가 있으므로. 여러 종류 가운데 '나오시마노모가타리'(나오시마 이야기)라는 맥주를 마셔 보았다. 허브의 향과 과일의 맛이 아직도 입에 맴도는 것 같다.

12. 삼천년 이상 된 가장 오래된 온천: 도고온천

Jinny_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도고온천'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온천인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근사해 보일 수 있으나 내부로 들어가면 당연하겠지만 그냥 목욕탕이다. (당일 목욕던 여관 욕탕이 더 좋다고 느껴질 만큼의 수준...:)

하지만, 가장 오래된 온천에 몸을 담가봤다는 자랑거리 하나를 얻었다는 것과 밤이 되면 조명 덕에 꽤 예뻐진다는 점은 도고온천 나름의 매력 포인트.

Truly_ 센과 치히로 모티브가 된 온천은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고온천의 낮과 밤 모습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낮과 밤의 모습이 많이 다른데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최소 두 번은 봐야 진정한 도고온천의 모습을 봤다고 할 수 있다.

도고온천 주변은 전형적인 일본 온천 마을을 연상 시킨다. 밤이 되면 유카타를 입은 손님들이 손에는 목욕 바구니를 들고 여기저기 온천거리를 돌아다니며 기념품을 사고 사진을 찍고 족욕을 하는데 그 모습이 아기자기하다. 유카타랑 목욕 바구니는 대부분 숙소에서 빌려주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묵었던 호텔에서 빌려줘서 우리 둘도 신나게 입고 돌아다녔다.) 소셜 도련님의 무대가 된 이 곳은 방문한 손님들도 장난꾸러기처럼 만드는 묘한 분위기가 있다.

26



도고온천의 아침. 저녁에 불이 들어온 모습과는 달리 정갈하고 깔끔한 외관이다.



그야말로 반전매력을 뽐뽐 뽐어내고 있는 도고온천 밤의 풍경. 아침, 저녁으로 꼭 한번씩 봐 두길 권한다.

13. 나쓰메 소세키 『도련님(봇짱)』의 마을: 도고온천

Truly_작은 기차를 타고 도고온천 역에 내리면 일본 소설 '도련님(일본어로 봇짱)'의 주인공들이 매시 정각 시계탑에서 나타난다. 정각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계 바늘이, 정각에는 소설 속 등장 인물들이 나온다. 이것이 봇짱 자동인형(가라쿠리) 시계! 시계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족탕(호조엔)인데, 온천물에 피로한 발을 담고 족욕을 할 수있는 공중 족욕탕(무료)이다.

도쿄에서 시골 마츠야마 수학 교사로 오게된 봇짱, 그의 유일한 낙은 도고온천 마을까지 기차를 타고 와 온천을 하고 경단을 입에 물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었다. 처음 들어 보는 시골 사투리, 지루한 시골 생활, 낯선 사람들과 속이려는 사람들, 장난꾸러기 학생들과 선생님들 -너구리 교장, 나쁜 짓 하는 빨강셔츠 교감, 착해 빠져 이용당하는 끝물 영어 선생, 처음엔 별로였지만 알면 알수록 진국인 수학 주임 '멧돼지'선생까지.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정의 실현 현장이던 도고온천! 이를 반영한 것인지, 도고온천에는 개성 있고 뚜렷한 소설 속 주인공들이 기념품 속에, 인형 속에, 그림 속에 가득하다. 곳곳에 봇짱 컷즈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실제로 작가 나쓰메 소세키는 마츠야마에 영어 교사로 재직 했었고 그 경험을 소재로 쓴 작품이 바로 '도련님'이라고 한다. 소설을 읽고 도고온천을 방문한다면 봇짱의 유쾌함과 정의, 통쾌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봇짱 열차. 항상 서 있는게 아니라 실제 운행되기도 한다.



자동 인형(가라쿠리)시계. 정각이 아니면 일반 시계인데 정각이 되면 소설 도련님의 주인공 인형이 나온다.



나쓰메 소세키의 도련님 등장 인물들. 하나같이 친근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가득하다.

14. 마치는 글

Truly: 혹시 이 책을 읽고 정말 시코쿠에 가야겠다!고 결심이 선 사람이 있을까?

Jinny: 글썽,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Truly: 흠.. 그럼 우리 글에 책임을 져야되잖아?(웃음) 이 책을 보고 시코쿠를 가려는 분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Jinny: 우리가 갔던 여행지에 대해 궁금한걸 물어보면 답변해 줄 수도 있고, 뭐.. 브런치에 댓글 남기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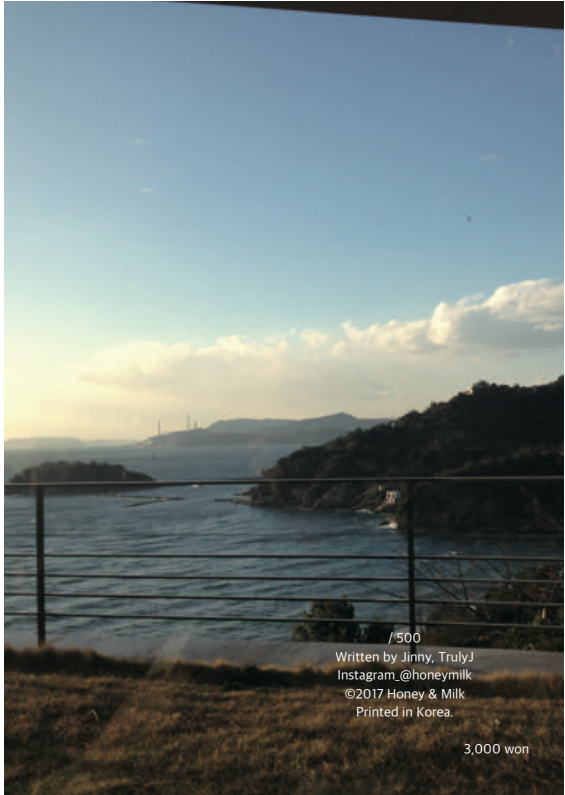
-

에헴, 혹시라도 이 책을 보고 시코쿠에 가시려는 분들!!
궁금한거 물어보시면 약소하게나마 아는 선에서
답변드릴게요. 연락주세요 >.<

<https://brunch.co.kr/@milkhoney>



그럼, 다음에!



/ 500

Written by Jinny, TrulyJ
Instagram_@honeymilk
©2017 Honey & Milk
Printed in Korea.